

2017 생물다양성 포럼 in 인천



생물다양성과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행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후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인천발전연구원
협력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생물다양성 지역 포럼



‘생물다양성 지역 포럼’이란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의 부대행사인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s 2014)를 개최함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의 노력과 성과 공유 및 정책역량 강화 논의의 정례화를 위해 마련된 국내 생물다양성 포럼이다.

-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의 부대행사인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s 2014)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과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5년 9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수립되었으며 전 세계의 환경,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지역 실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의 노력과 성과 공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11월, 강원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제안으로 ‘2015 생물다양성 강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와 ‘2017 생물다양성 포럼 in 인천’이 개최되었다.

○ 생물다양성 지역 포럼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와 인식 증진 기회 마련
- 국가-지방정부간 생물다양성 정책 및 이행 현황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선언의 국내 이행 점검
- 시민 참여를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 이슈 현안 공유 및 토의
- 지방의제21 운동 차원의 생물다양성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Bs) 설정 및 공동 지표 수립



2017 생물다양성 포럼 in 인천

생물다양성과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행

CONTENTS

<2017 생물다양성 포럼 in 인천> 개요	4
개회식	5
세션 1. 국가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현황	6
세션 2. 지역 현장에서의 생물다양성 실천사례 공유	8
세션 3. 인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이슈와 과제	10
폐회식	12
전시부스	13
행사 이모저모	14
주요 결과와 정책 제안	15

2017 생물다양성 포럼 in 인천 생물다양성과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행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와 제13차 당사국총회의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2014, 대한민국 강원도 / 2016, 멕시코 칸쿤)에서 논의된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이행과정 공유의 장이 필요했다. 아울러 인구 300만의 고밀도 개발도시이면서 바다와 섬, 갯벌, 내륙 S자 녹지축을 갖고 있는 인천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비전을 공동 모색하고 설정하기 위한 논의도 중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생물다양성 지역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일시/장소** 2017년 8월 24일 인천대학교
- **주최** 인천광역시
- **주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참석자** 생물다양성 업무관련 공무원, NGO, 시민, 전문가 약 160명
- **주요프로그램**
 - 기조강연.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생물자원은 우리의 힘
 - 세션1. 국가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현황
 - 세션2. 지역 현장에서의 생물다양성 실천사례 공유
 - 세션3. 인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이슈와 과제
 - 폐회식 세션별 결과 공유 및 경기의제21 '2차 생물다양성포럼 그 후' 발표



개회식



개회식은 박홍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와 조동암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의 축사, Spike Millington EAAFP 사무국장의 격려사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LBSAP)'을 수립 중인 인천에서 생물다양성 포럼이 개최된 것과 '2014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국내 개최 이후 세 번째 이어온 이 포럼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또한 다양한 NGO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조강연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생물자원은 우리의 힘

19세기 말부터 국외로 반출된 생물자원들로 인해 생물주권을 빼앗긴 현실을 짚어 보았으며 산업영역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연계 및 협치, 국제협력 확대, 국민 참여 연구, 산업계 협력, 지방정부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

세션1 국가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현황

세션1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와 지역,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연계와 이행강화를 위한 점검체계가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편으로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쓸 것이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이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물다양성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보일 수 있다.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물다양성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원도에도 많은 생물종이 있다. 강원도는 열심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진권 (강원도청 환경과 자연환경팀장)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 지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산업 및 공업화로 인해서 울산시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과 바다를 보유한 생태도시이다. 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센터 수립을 추진 중이고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김희중 (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충북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가 정한 전략과 비전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대광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운영국장)



전 세계에 950개 정도의 중요한 습지가 있지만, 현재 136개만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에 가입 되어있다. 현재 다른 지역들도 함께 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한다.

윤동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부국장)

세션2 지역 현장에서 생물다양성 실천사례 공유

세션2에서는 인천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의 실천사례와 현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 지원과 시민과학 자료들이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공감하였다.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의 깃대종인 물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생태서식지가 매립과 모래채취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및 주민이 섬 자연과 역사, 문화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입 창출 효과 까지 도모할수 있도록 정부, 주민, 환경전문가, 어민단체의 협업 구조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노형래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장)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정수천네트워크와 함께 2011년부터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다.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논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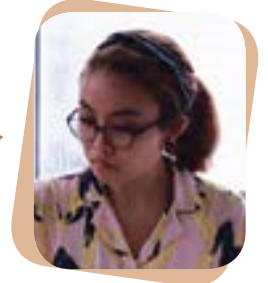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2009년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하면서 매일 저어새 번식과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찾아오는 습지학교, 찾아오는 저어새 교육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저어새와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간사)

인천녹색연합은 영종도에서 연안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소개하였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15년 째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갯벌 모니터링은 서해안 갯벌의 생물다양성 조사와 갯벌탐방을 통한 보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미리 (인천녹색연합 연안보전팀장)



가톨릭환경연대는 인천 S자 녹지축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으로 비오톱(Biotope) 관리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마을재생사업과 연결하여 거주지역 주변의 비오톱지역의 보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시흥지속가능발전협회는 2013년부터 시흥갯골습지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를 결성하였고 2014년부터는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의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시흥갯골 모니터링은 시민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시흥갯골의 생태변화를 파악하여 습지생태의 보전과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앞장선다.

강석환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화도시민연대는 철새탐조길잡이, 도요물떼새, 저어새 관련 교육 및 가이드 책자 발간, 강화지역 청소년 연합동아리 생태광장 구성, 연안정화 및 쓰레기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세션3 인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이슈와 과제

세션3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심주제에 따라 인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이슈와 과제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양오염, 도심하천복원, 해양쓰레기, 갯벌매립 및 생물다양성교육과 관련한 5개조로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들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증진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토양오염

한국전쟁 이후 DDT, 마이신 등 화학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야기된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지하수, 하천, 갯벌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졌다. 산업발달로 야기된 환경오염은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정확한 오염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을 통해 토양오염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도심하천복원

도심하천 복원을 위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시스템 복원이 필요하다. 사방댐 공사가 생물다양성을 막고 있는 현실이다. 복원의 개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닌 생물다양성과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되어야 한다.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는 어구, 비닐 등과 같은 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행정차원에서 수거인력을 모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교육과 소비문제를 점검해 봐야 한다.

갯벌매립

갯벌과 습지는 개발로 인해 절대 면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 영종도 갯벌 준설투기장, 관광레저단지 조성의 문제 등에 대해 정책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갯벌교육의 내용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저어새와 갯벌 생물의 캐릭터화같은 문화컨텐츠 사업을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의 최초 사례인 북성포구 문제도 매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교육

생물다양성교육은 전문가 영역을 넘어 일반 시민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교육을 위해서 눈높이 교육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어릴 적부터 생물다양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초과학에 중심을 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공공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이 필요하다. 인천시 환경정책과는 내년부터 체계적이고 규모를 갖춘 바이오블리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폐회식

폐회식에서는 이번 포럼의 세션별 결과를 요약하여 공유하였다. 작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2차 지역포럼을 공동 개최한 푸른경기21에서는 포럼 이후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 포럼이 갖는 의의와 지역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하며 차기 포럼 개최지인 충청북도를 소개하였다.



인천지역을 비롯해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우리 활동들이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그 준비 과정에 많은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오늘 논의한 내용은 잘 정리하여 환경부에도 전달하겠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포럼 이후, 푸른경기21은 생물다양성과 SDGs를 어떻게 연결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계숙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전시부스





주요 결과와 정책 제언

○ 주요 결과와 정책 제언

1.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지역 연계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지원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을 위한 지원과 점검체계 구축
-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2. 중앙-지역-시민 간 소통을 위한 정례적 정책 교류 플랫폼 마련

예) 지역생물다양성 포럼 환경부 공동 주최 :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연계된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간 정책교류를 촉진하며, 적극적 이해당사자 연계를 지원하는 정례 플랫폼 운영

예) 생물다양성 국내 선도 도시 네트워크 (Biodiversity-LEading local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LEAD) 운영 :

- 국제사회-국가-지방정부를 연계하는 적극적 정책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생물다양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 출범. 후발 지방정부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3. 시민과학 활성화와 적극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 이행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모니터링 활동과 자료들이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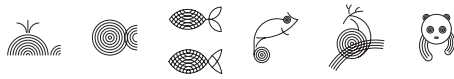
4. 범사회적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과 활동 강화 & 다각화

- 생물다양성 기초교육, 시민 인식증진, 홍보 방안 마련과 운영 (캠페인, 대중 매체 활용 등)

5. 국제사회와 연계된 생물다양성 정책 업그레이드

- 생물다양성 주류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생물다양성 정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점검
-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연계 전략 개발과 지원





지역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가 인천에서 이뤄졌습니다.

「2017 생물다양성 포럼」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가 만납니다.



■ 2018년 생물다양성 포럼 개최예정지

- 지역 : 충청북도
- 주관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방향 :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을 품은 한강과 금강의 시원(始原)인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에서 생물다양성 비전의 모색